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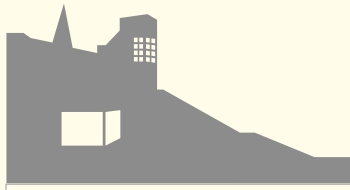
- 대 상 · 순천시 매산등 성지순례길을
알아가고 싶은 누구나
- 장 소 · 순천시 매산등 일대
- 참가비 · 무료
- 운 영 · 월요일 ~ 토요일 (10:00, 14:00)
- 인 원 · 회당 20명(선착순)
- 문 의 · 061)751-7554

매산등 성지순례길 방문자센터
(순천시 매산길 11, 순천기독교진료소내)



▲ 참가신청

단체의 경우 원하시는 날짜에 프로그램 개설 가능합니다.



순천시 매산길 61(매곡동)
T.061-749-4530

매산등 성지순례지 소개

1 호남복음화의 길(선교마을 교회구역)



구. 순천읍교회(순천중앙교회)

순천의 첫 교회이자 남장로교 순천선교부의 중심교회이다.
1907년 금곡동 학교 뒤 양사재를 예배처로 사용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 1913년 순천선교부 개설과 함께 전남 동부지역의
모교회로 성장하였다. 교회 안에서 매산학교와 중앙유치원 등
근대교육이 시작되었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원탁회사건)을 전개하였다.

2 조지와의초기기념관(국가등록문화재)

프레스턴 선교사가 전남 동부지역 교회지도자 양성을 위해
1921년 설립한 달(月) 성경학교에서 비롯되었다.
1925년 순천보통성경학교 교사로 건립되면서 후원자의
이름을 따 조지와의 기념 성경학교로 명명했다. 해방 후에는
인애자 선교사가 결핵퇴치사업을 위해 기독교를 운영하고,
인후 선교사는 농어촌 선교를 위한 등대선교회를 조직하였다.

3 순천선교부 선교기념비

남장로교 순천선교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건립한 선교기념비이다.
1892년부터 1986년까지 순천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는 80여 명이다. 호남지역 최초 순직자
로터 벨 모비석, 코잇·조지와초·프레스턴·크레인·보이델·인후 선교기념비, 순천선교부 순직비,
순천노회 수난비, 원탁회 사건 기념비, 여순사건·한국전쟁 순교비 등 총 11기이다.



4 순천선교병원 옛터

1913년 의료 선교사 티몬스(김로라)에 의해 전남 동부지역 최초로 운영된
서구식 근대병원이다. 처음 개원할 당시 건물에서 3,815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1914년 중앙교회 북쪽에 우진과 지봉의 벽돌 건물로 현대적인
병동을 건립하였다. 1916년 안력산병원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순천선교부의
부속건물 및 교육시설로 활용되었다.



구. 도립순천의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00년 역사의 전남 동부권 유일의 공립병원이다. 1919년 광주지하의원 순화진료소로 시작하여
1921년 관립병원으로 순천지하의원이 개원하였다.
1922년 본관 병동을 완공하고 1925년 도립병원(순천도립의원)으로 개편되었다.
1954년 전남 최초로 부설 간호학교를 개설하여 지금의 청암대학교로 발전하였다.

5 근대교육의 길(선교마을 교육구역)

선교마을 옛 담장

1913년 선교마을 조성 당시 세운 전통 토석담장. 이 담장 안은 일제 식민권력이
침범하기 어려웠 순천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해방의 공간이었다.
1961년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담장길을 배경으로 촬영되면서 매산등
옛 담장은 청춘 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다.
1980년 이후 각급학교가 증설되면서 지금은 학교 가는 등굣길이 되었다.



매산중학교 매산관(국가등록문화재)

미국 남장로교가 세운 순천의 대표적 근대건축이다. 1916년 건립한 은성학교 건물이 비좁아
1930년 스와인하트(서로독) 선교사가 남학교 교사로 다시 건축하였다. 일제강점기 순천의 2대
도시 특색 중 하나로 소개되며 교육도시 순천의 상징이 되었다. 매산학교는 1910년 사숙에서
시작해, 1913년 은성학교, 1921년 매산학교, 1946년 매산중학교로 발전하였다.

여순사건 학살지

1948년 10월 22일 매산등 당산나무 부근에서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다. 국군 12연대 일부 병력에
의해 주민 25명이 무고하게 총살당하였다. 보이델 선교사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페니실린 병에
이름을 담아 선교부 부지에 매장하였다. 현재 '이슬, 흙매로 피어나다.'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매산중학교와 순천중앙교회에서도 11명이 파살되었다.

인후 선교사 차량(랜드로버)

1970년 순천선교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등대선교회를 창립해 농어촌지역
복음화와 교회 개척에 헌신하였다. 이 차량은 인후 선교사와 안기창 목사가 타고
다녔던 랜드로버 차량이다. 등대선교회는 전국 농어촌 벽지에 교회 개척 후보지
1,118곳을 조사하고, 일선교회 개척 운동을 전개하여 732개 교회 건축비와
전도비를 지원하였다.

순천노회(성서신학원) 순교자 기념비

순천선교부와 순천노회 출신 순교자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
'사랑의 원자탄' 순양원 목사와 두 아들(동인·동산)을 비롯해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여순사건·한국전쟁 등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하였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해 매산학교와 안력산병원의 문을 닫고 저항하였다.



프레스턴 선교사 가옥(국가등록문화재)

1913년 순천에서 처음으로 건축한 선교사 가옥으로 프레스턴(변요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순천 옥천에서 나는 화강암(호랑이석)으로
외벽을 쌓고 한식 기와를 얹은 한양 절충식으로 건축되었다.
해방 후에는 순천선교부의 의료사역을 주관하였던 여수애양병원
원장들(보이델, 토를 선교사)이 거주하였다.

월슨 선교사 차량(포드 T형)

여수애양병원(애양원)을 설립한 나환자들의 치료에 일생을 헌신한 월슨(우월순)
애양원 초대원장이 의료선교를 위해 타고 다녔던 차량이다.
월슨 선교사는 코잇 가옥에 거주하면서 이 차량을 이용해 여수 애양원으로 출퇴근했다.
1920년대 순천 선교사들은 매산등 도로를 개설하고 전남동부지역과 남해안 선교를 위해
다양한 선교사 차량을 운영하였다.

6 목상의 길(기도산)

목상의 숲

난봉산을 선교마을 기독교인들은 기도산으로 불렀다. 1913년 코잇 선교사의 가족이
이집에 걸려 두 아이가 죽고, 부인이 사경을 헤매 때 그녀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눈물의 기도를 드린 데서 유래하였다. 2012년 선교마을 상수도시설 관리사
건물 터에 기도 벽을 세우고, 이 숲을 '목상의 숲'으로 명명하였다.

선교마을 옛 상수도시설

1913년 코잇 선교사 자녀의 화상을 계기로 조성된 전남 동부지역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다. 일제 당국이 1933년 조성한 순천을 상수도보다 무려 20년 이상 앞섰다.
현재 상수도 취수보를 비롯해 관리사 건물 공작, 물탱크 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상수도 시설은 1980년대까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였다.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한국 선교 역사와 호남지역 기독교 110년의 역사를 보존·전시하기
위해 2012년 개관한 공립박물관으로 현재 선교사들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미국 남장로교가 한국에서 전개한 근대교육
및 의료선교 역사와 순천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 초기 교회를 재현한 7자 교회, 종말영상실,
작은도서관이 있다.

목상의 방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인 성경 필사와 목상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목상과 사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삶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사경화 운동은 개인이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근대 시기에 초기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7 근대문화의 길(선교마을 주거구역)

더함(크.크레인) 선교사 가옥

1913년 건립 당시부터 크레인(구레인) 박사 가족이 거주해 순천사람들에게는 '크레인 가옥'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크레인 가족은 순천의 근대교육과 신학, 식물학, 의학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1년 남장로교 마지막 선교사였던 더함 선교사 부부(노우함·노혜란)가
순천선교부의 관리 문제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1985년까지 거주하였다.

코잇선교사 가옥(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순천선교부 초기 주택으로 매산학교를 설립한 코잇 선교사가 거주하였다.
코잇은 순천선교부 개척 선교사로 선교부 부지 구입부터 각종 시설 건립을 도맡아
진행했다. 이 선교사 주택은 월슨(우월순) 여수애양병원장을 비롯해 밀려(민유수)
순천고등성경학교장, 폴 크레인(구바울) 전주예수병원장 등이 거주하였다.

구. 순천선교부 외국인어린이학교(국가등록문화재)

순천선교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시설로 1920년대 건립되었다.
1970~90년대에는 애양원 장애인 직업학교인 재활직업보도소의 예배처로 사용되었다.
건물은 외형을 화석 벽돌로 만들어 주변의 석조로 건축된 선교사 가옥과 대조를 이루며,
정교한 벽돌쌓기 기법과 조형미가 잘 표현되어 있다.

애양원 재활직업보도소 석조 교사

1954년 보이델 애양원장이 선교부 초기 건물을 활용해 건축한 후
1962년 인애자 선교사가 순천 대홍수 때 임시 결핵진료소로 사용하였다.
1974년 토를 선교사가 외과적 치료가 끝난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남 동부지역 최초로 장애인 직업학교를 운영하였다.
애양원의 의료사역이 한센병 치료에서 장애인 사회재활로 바뀐 역사적인 건물이다.

애양원 재활직업보도소 콘크리트 교사

애양원의 장애인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면서 1985년에 새롭게 건축한 재활직업보도소
건물이다. 장애인편의법(1997)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립된 무장애 시설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당시 교육생에게는 무료 교육, 급식사 제공, 취업 알선,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이 제공되었다. 졸업생 가운데 66.7%가 취업에 성공하였고 17.8%가 개업했다.



로저스 선교사 가옥

1913년 순천선교병원 의사 티몬스의 주택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로저스 선교사가 안력산병원 제2대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거주하였다. 로저스는 부인의 병과 장모의 사망으로 곤란을 겪으면서도
헌신적인 인술을 펼쳐 순천의 작은 예수로 불렸다. 해방 이후에는
인후 선교사 가족이 거주하며 농어촌 선교와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했다.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

1913년 순천선교부에 부임해 44년간 한국선교에 몸 바친 플로렌스 선교사가 발간한
'한국의 들꽃과 전설(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에서 발췌한 식물도감 벽화길이다.
그녀는 한국의 들꽃을 매우 좋아해 매산학교에서 산업미술을 가르치면서 틈틈히 순천의 들꽃을
스케치하고 노인들로부터 꽃에 얽힌 민담을 채록하여 1931년 책을 펴냈다.
한국 최초의 야생화 도감이다.

8 근대의료의 길(선교마을 병원구역)

한국형 구급차 1,2호

'순천의 거점 고무산' 인후 선교사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아들 인요한 박사가 만든
최초의 구급차이다. 순천소방서에 기증하여 현재 1,000회의 출동 건수를 기록했다.
전남 동부 6개 시군의 수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차량이다.

인요한 박사가 특장차 전문회사와 협업해 선진 5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보급형으로 만든 고성능 구급차이다. 수천 대가 전국 일선 소방서와
병원에 보급되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구급차 시대를 열었으며 국가적인 응급의료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안력산병원 옛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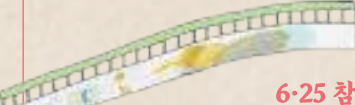
안력산병원은 순천선교부의 두 번째 선교 병원이다.
1916년 알렉산더의 후원으로 당시 최신 설비로 현재 매산고등학교
기숙사 자리에 건립되었다. 1932년 알렉산더와 조지와초 두 미망인의
후원으로 대규모 증축이 이뤄지는데 1941년 폐원 전까지 서울 세브란스에
이은 전국 두 번째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안력산병원 격리병동

192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의 캐머런 모리스 부인의 헌금으로
안력산병원의 부속병동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전남동부지역 병원 가운데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시설이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2017년 청수골 새마을사업을 통해 외부
미장 면을 제거하고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고산의원장 가옥 및 정원

고산의원 최정완 원장 가옥이다. 매산학교 교사,
안력산병원 수련의로 근무하였고 1943년 고산의원을 개원하였다.
1923년 한옥을 짓고 정원을 조성하고 1961년 현재의 가옥을 신축하였다.
1964년 순천에서 최초로 세계여행을 다녀온 후 서구식 정원을 새로 조성해
전국적인 호평을 받았다. 2023년은 정원을 조성한 지 100년이 되었다.



6·25 참전 학도병 충혼벽화(매산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순천지역 학도병들의 충혼정신을 기리는 기념벽화이다.
학도병은 매산중학교 32명을 비롯해 순천시범학교 9명, 순천농림학교 7명,
순천중학교 4명, 순천공업중학교 3명, 순천고등국민학교 1명 등 총 56명이었다.

호남기독교 110년 역사를 체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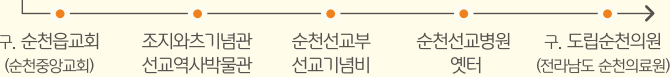
순천시 기독교 역사 박물관
SUNCHEON CHRISTIAN HISTORY MUSEUM

순천시
Suncheon-si

매산등은 조선시대 이래로 아이들의 풍장터(애기 장터)가 있었던
벼려진 땅이었다. 1913년 난봉산 자락 언덕에 미국 남장로교
순천선교부가 교회·학교·병원과 선교사 주택 등을 건립하면서
선교마을이 형성되었다. 이후 1986년까지 교육·의료·복음 분야의
8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로써 매산등은 전남 동부지역 기독교의 요람이자 최초의 종합
병원이 설립된 근대의료의 중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근대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또한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풍토병 등으로 수많은
순교자와 희생자를 배출한 기독교 성지이다. 현재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다섯 동의 근대건축물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매산등 성지순례길은 선교마을의 교회·교육·주거·의료구역과
기도산을 탐방하는 5개의 역사체험길로 구성되어 있다.

Path of Evangelism in Jeolla Province [Church Zone]

전남동부권 선교거점이었던 선교마을 교회구역을 탐방하는 길이다. 순천선교부는 호남지역 선교를 위해 미국 남장로교가 다섯 번째로 개설한 선교기지(Mission Station)이다. 1910년 순천부음성의 북문 앞 현 위치에 순천읍교회를 세우고 1913년 순천선교부를 개설하면서 전남 동부권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성경학교와 전남동부권 최초의 근대 병원인 순천선교병원을 현 조지와츠 기념관 인근에 건립하였다. 1922년에는 한국 두 번째로 지자체(당시 순천군) 기독교를 대표하는 순천노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교세 성장으로 일제강점기 순천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근대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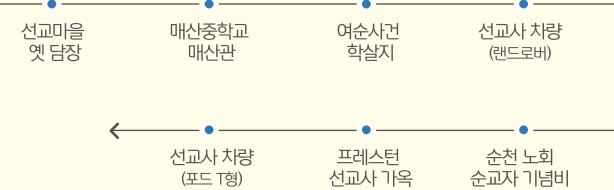


Path of Modern Education Zone [Education Zone]

순천 근대교육의 중심이었던 선교마을 교육구역에 탐방하는 길이다. 1910년 금곡동 사숙(私塾)에서 시작된 학교 교육은 은성학교, 매산학교 매산여학교, 매산중학교, 매산고등학교, 매산여자고등학교로 발전하여 교육도시 순천을 상징하는 역사공간이 되었다.

당시의 학교 교육으로 근대 체육과 음악이 전반 동부권에 전파되었고 순천고등성경학교와 순천서신학원이 건립되어 수많은 교역자를 배출하였다.

매양원에서는 장애 환자의 사회 재활을 돕기 위해 전만 최초로 장애인 직업학교를 세워 사회에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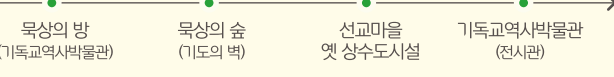
Path of Contemplation Gidosan [mountain of prayer]

매산동 선교마을의 기도산을 탐방하는 길이다.

순천부읍성의 주산(진산)인 난봉산을 기독교인들은 '기도산' 또는 '에덴 동산'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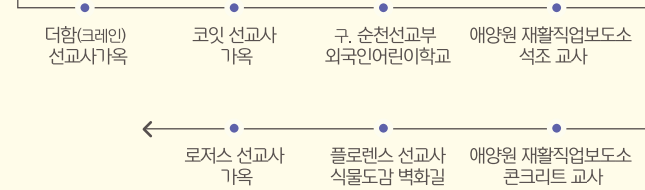
교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시련을 극복했다.

현재 1913년 조성한 선교마을 옛 상수도 시설이 남아 있으며, 2012년 교인들이 기도했던 공간에 '기도의 벽' 조형물을 세우고 묵상의 숲이라 명명하였다.



Path of Modern Culture [Residential Zone, Missionary Village]

1913년 조성된 순천 선교사들의 주거공간이다.
프레스턴 가옥, 코이트 가옥, 크레인 가옥(現 덕합 선교사 가옥), 로저스 가옥,
엥거 가옥(소실), 독신여성 숙소(소실) 등의 선교사 가옥이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선교사 주택을 장애인 직업교육 학교 건물로 활용하였으나
매산여자고등학교 설립과 매산등 도로 개설에 따라 부지가 일부 변했다.



Path of Modern Medicine [Medical Zone]

근대의료가 체계적으로 구현된 선교마을 의료구역을 탐방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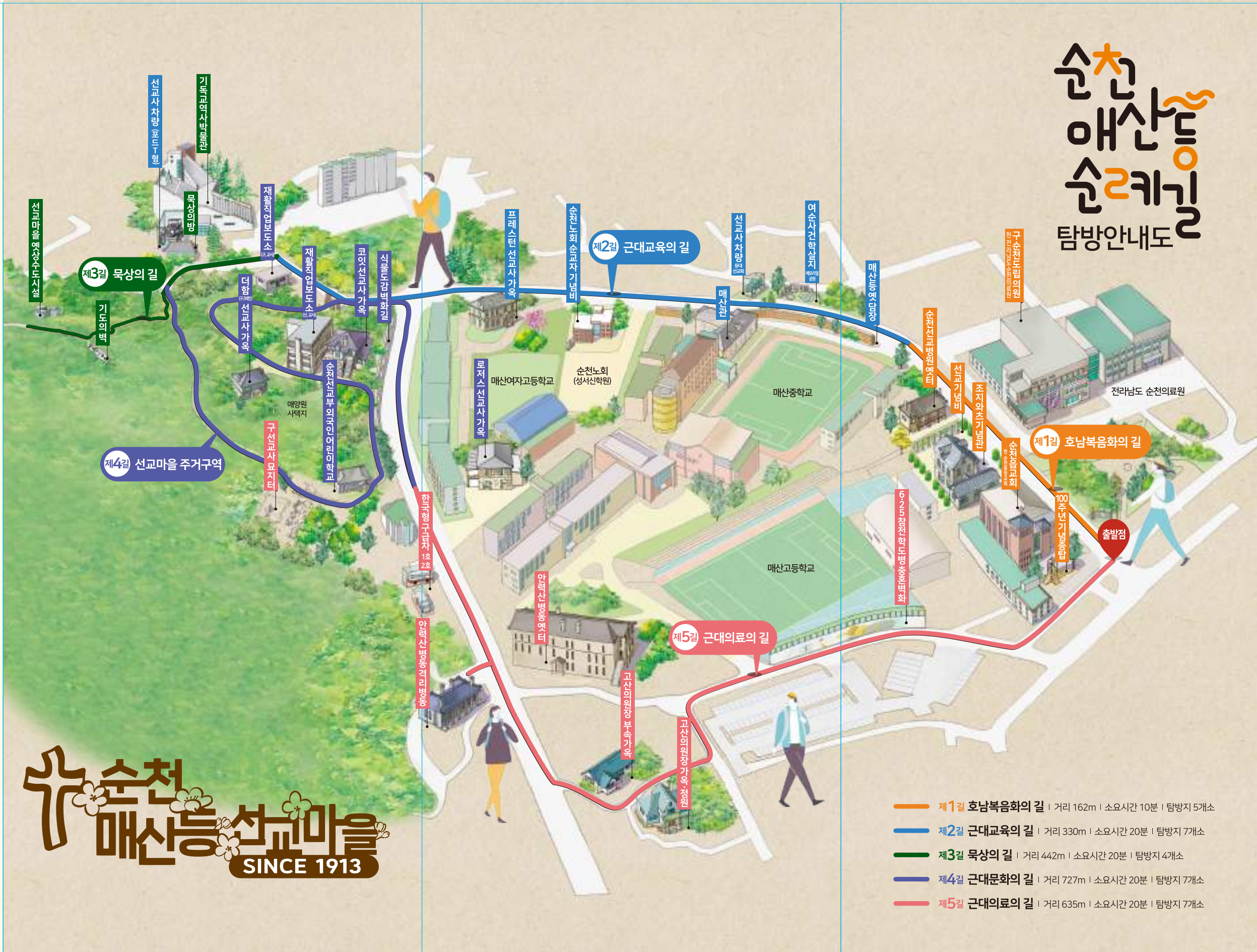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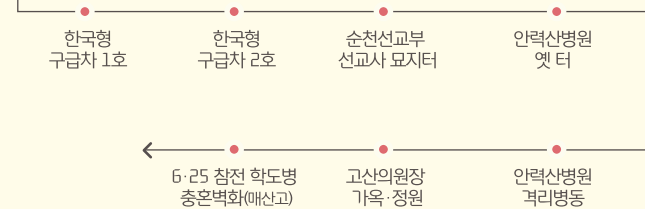
순천선교부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지역민을 치료하기 위해 1913년 전남동부권 최초의 근대병원인 순천선교병원을 설립하고, 1916년 최신설비를 갖춘 현대적 종합병원인 안력산병원을 건립하였다.

병원 건물은 순천의 도시상징으로 유명했으며, 간호사 숙소, 격리병동, 발전기실, 세탁실, 차고, 선교사 묘지, 상수도시설이 함께 만들어졌다.

또 여수애양병원(애양원)을 설립해 한센병환자와 장애인을 치료하였다.

인후·인애자 선교사는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순천 기독교진료소·기독교결핵재활원·보양원을 운영하였다. 인요한 박사는 한국형 구급차를 만들어 응급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세반 박사는 유진벨재단을 설립해 북한 의료기관 70곳에서 25만여 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였다.



- 제1길 호남복음화의 길** | 거리 162m | 소요시간 10분 | 탐방지 5개소
- 제2길 근대교육의 길** | 거리 330m | 소요시간 20분 | 탐방지 7개소
- 제3길 목상의 길** | 거리 442m | 소요시간 20분 | 탐방지 4개소
- 제4길 근대문화의 길** | 거리 727m | 소요시간 20분 | 탐방지 7개소
- 제5길 근대의료의 길** | 거리 635m | 소요시간 20분 | 탐방지 7개소